

##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

10/9 월요일

### 아침의 누림

빌 3:10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딤후 2:11

11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

롬 8:14-18, 23-25

14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15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17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만일 참으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18 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2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4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두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

빌립보서 3 장 10 절에 계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는 과정은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앎으로써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고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아야 한다. ‘그분의 고난의 교통’(빌 3:10)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마 20:22-23, 골 1:24)인데, 이것은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써 그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딤후 2:11). 바울은 그리스도 자신께서 탁월하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생명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체험하기 위하여 추구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죽음이 먼저 오고 나서 부활이 뒤따랐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그분의 부활 능력이 먼저 오며 그 다음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 뒤따른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부활 능력을 받는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능력으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고난은 주로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신약의 결론, 9 권, 믿는 이들, 142 장, 107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부활의 모든 요소를 주입 받으며, 이러한 주입으로 말미암아 몸을 위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그분의 부활을 분배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앎으로써 그분의 죽음을 체험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참여하여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더 알게 될 것이다.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기에 갈망한다(비교 고전 1:9). 그러나 빌립보서 3 장 10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태생적으로는 참여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며,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준다. (신약의 결론, 9 권, 믿는 이들, 142 장, 108-109 쪽)

성령을 정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신학이 아닌 실지적인 체험에 근거할 때, 성령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쳐 둔 후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그것이다. ... 우리에게 그 영께서 계신다면, 제한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제쳐 두려 하지 않는다면, 그 영은 제한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단순히 의지를 사용하여 자신을 제쳐 놓기를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 상황이 힘들 때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 아래 머물라. ... 여러분은 죽음이 있는 곳에 또한 부활 능력도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부활의 능력이신 그 영은 즉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실 것이고, 우리는 기쁨으로 “죽음 두렵지 않네”(찬송가 362 장)라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 우리는 갈보리에 가는 것을 누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신 거룩한 영을 누린다. 이것이 부활 능력의 실재이다.

부활 능력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갈보리에 이르러야 한다. 갈보리에 놀라운 죽음, 곧 부활을 가져오는 죽음이 있다. 우리가 자아를 십자가에 둔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그것이 성령일 것이다. 이 남아 계신 분으로 인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다. 우리는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가 아니라, 심프슨(A. B. Simpson)처럼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갈보리까지 갈 것이다. 우리는 부활 능력을 통해 죽음을 누릴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1권, 그리스도를 체험함, 16장, 658-66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9권, 믿는 이들, 142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1권, 그리스도를 체험함, 16장

## 10/10 화요일

### 아침의 누림

#### 골 1:24

24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 요 12:24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

#### 요 10:11, 15, 17-18

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15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립니다.

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18 나에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목숨을 버릴 권위도 있고, 다시 얻을 권위도 있습니다. 이 명령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 받은 것입니다.”

#### 요 12: 12:23-26

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25 자기 혼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혼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혼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두 범주가 있다. 한 범주는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께서 이미 완성하셨다. 다른 한 범주는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한 고난이다. 이것은 사도들과 믿는 이들이 채울 필요가 있는 고난이다(골 1:24). 우리는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지만,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는 구속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요 1:29), 밀알이신 그리스도는 재산출과 건축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12:24). 주님은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로서, 부활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많은 밀알 속에 해방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통해 그분의 혼생명을 잃으셨다(요 10:10-11). 하나의 밀알은 몸의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고난을 완성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므로 많은 밀알들인 우리가 하나의 밀알이 고난 받으신 것과 같이 고난 받아야 한다(요 12:24-26). 많은 밀알인 우리 역시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죽음을 통하여 혼생명을 잃어야 한다(25 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그분을 따르는 것이며, 우리의 혼생명을 잃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생활하는 이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26 절). 교회가 생겨나고 증가하는 길은 사람의 영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의한 것이다. (신약의 결론, 22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349장, 45-46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쳐 두고 십자가 아래 계속 머물 때, 부활 능력은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그 즉시 우리를 대적하여 반대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고난이 몸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고난,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실수로 인한 고난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몸의 건축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예를 들어, 우리는 운전할 때 실수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그러한 고난은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결과이다. 그것은 몸을 산출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다. ... 그러나 가령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누리고 있다고 해 보자. 그로 인해 상사들이 여러분을 적대시하여 승진에서 탈락시키거나

해고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고난은 몸의 산출과 건축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범주의 고난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한 범주의 고난은 우리의 증거로 인한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제쳐 두고 부활의 능력을 누릴 때, 우리의 증거는 매우 강할 것이다. 이것은 원수의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우리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고난, 즉 몸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반대를 당할 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누린다. ...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더욱더 우리의 누림이 된다. 또한 우리에게 부활 능력에 대한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된다. 바꾸어 말해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삶을 사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을 다시 우리 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알며,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안다. ... 그분께서 자신의 삶을 우리 안에서 반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된다.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분을 따른다. 이것은 우리가 심지어 그분의 고난받는 삶에서도 그분을 따르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1 권, 그리스도를 체험함, 16 장, 663-66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52 장;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20 장

## 10/11 수요일

### 아침의 누림

#### 고후 3:18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 고후 4:10

10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

#### 고후 4:7-9, 11-12, 15-18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8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짓눌리지 않으며, 나갈 길을 찾을 수 없어도 나갈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9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11 이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임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죽임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15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통하여 풍성해진 은혜로 감사가 넘쳐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7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냅니다.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성되었지만, 몸을 산출하시고 건축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한 고난도 '그분의 고난'이라 불린다(빌 3:10). ... 골로새서 1 장 24 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으로 여겼다. ...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그분의 고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는 그분의 몸을 위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신약의 결론, 9 권, 믿는이들, 142 장, 107-108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변화를 위한 고난과 몸을 위한 고난에는 차이가 있다. 빌립보서 3 장 10 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변화를 위한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3 장 10 절과 골로새서 1 장 24 절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빌립보서 3 장 10 절에서 바울이 말한 고난이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몸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부활 능력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참여하여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더 알게 될 것이다.(신약의결론, 9 권, 믿는 이들, 142 장, 108 쪽)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모든 고난이 같은 범주에 속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게 되는 고난에는 적어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종류의 고난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것이다. ...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온다. 타락으로 인해 창조물은 남아졌다. ... 창조물은 타락했고 부패했고 썩어 가고 있다. 옛 창조물과 타락한 사람에게는 너무도 많은 재난과 질병이 있다. ...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은 모두 사람이며, 사람인 이상 우리는 재난을 피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은 죄들과 실수에서 오는 고난이다. 만일 우리가 자신이 책임진 일들을 이행하는 데 부주의하거나 어리석다면 일종의 손실을 겪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세 번째 범주의 고난은 예수님을 죽게 한 고난이다. 바울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체험한 것이 아니었다. 그와 반대로 그는 모든 면에서 올바른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괴로움을 당하고, 혼란스러운 일을 만나며, 박해를 받고, 맞아 쓰러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몸과 새 언약의 사역을 위한 것이었다.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은 잘못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특별한 고난은 그들의 어떤 실수와도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소멸되어야 할 걸사람이 있었다.

주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 그분은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셨으며, 어떤 일에서도 잘못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께도 소멸되어야 할 걸사람이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형벌이나 바로잡음이나 징계가 아니다. ... 우리를 바로잡거나 벌하거나 징계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의 목표가 아니다. 이는 또한 자연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문제도 아니다. 그보다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사람, 즉 우리의 걸사람과 육체를 소멸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임하는 일종의 박해나 죽음의 활동이나 다루심이며, 이는 우리의 속사람이 발전되고 새로워질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35 장, 323-32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성경의 중점 진리, 5 권, 49 장

## 10/12 목요일

### 아침의 누림

빌 3:10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롬 6:5

5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

빌 3:7, 9, 12-16

7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1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풋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16 그러나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같은 규칙으로 행합시다.

---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겨야 하는데, 그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즉 율법에서 나온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우리로부터 살아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인 의를 갖는 것이다(빌 3:7-9).

이 절들에서 계시된 항목들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빌 3:10)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김, 그리스도를 얻음, 그분 안에서 발견됨, 그분을 앎,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앎,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앎은 모두 한 가지,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으로 귀결된다.

빌립보서 3 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형이나 틀로 생각했다. 예를 들어, 자매들은 케이크나 쿠키를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틀에 넣는다. 결국 그 밀가루 반죽은 틀 속에 눌러 넣어짐으로 그 틀의 모양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 이것이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뜻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의 틀로, 그리고 우리를 그 틀 속에 넣어져 놓리는 밀가루 반죽으로 간주한다. 그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위트니스리 전집, 1978 년, 1 권, 그리스도를 체험함, 17 장, 667-668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아담의 죽음은 끔찍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혐오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귀하고 사랑스럽다.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죽음은 침례로 상징된다. 복음서들에서 주 예수님은 두 가지 침례를 체험하셨다. 첫 번째는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 의해 받으신 침례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사역의 말기에 십자가에서 받으신 침례이다. 두 침례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죽음을 상징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1 권, 그리스도를 체험함, 17 장, 668 쪽)

우리에게는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다(요 11:25).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분의 생명은 부활 능력이다. 우리가 가난할 때 그분은 우리가 빈곤의 압력을 견딜 수 있게 하신다. 우리가 번창할 때 그분은 우리가 번영이라는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할 때, 그분은 내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신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그분은 내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칭찬에 저항하게 하신다.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좋은 자질과 장점을 잃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내적 공급인 부활 능력이심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의 틀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이러한 죽음의 틀 속에 넣어진 후에, 부활 능력은 우리를 이러한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한다. ... 틀 속의 반죽이 구워진 후에 반죽은 틀과 같은 모양이 된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며, 우리를 깊어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틀 안에 넣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상을 지닌다.

우리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죽음의 틀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과 별개인 모든 것은 죽음의 틀에 의해 끝나고 제한되었다. 주 예수님은 삼십삼 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죽음의 그늘 아래, 즉 죽음의 틀 안에서 사셨다. 이렇게 그분은 하나님을 따르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며, 하나님을 위해 사시고, 하나님을 살아 내셨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를 그분의 죽음의 틀 안으로 넣는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계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 부활 생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안에 넣어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55 년, 1 권, 영문판, 337-33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1 권, 그리스도를 체험함, 17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55 년, 4 권, 영문판, 446 쪽; 생명의 체험과 성장, 12 장

## 10/13 금요일

### 아침의 누림

**빌 3:10**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요 6:57**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

**요 5:19-23**

19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므로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 주시며,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 주셔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21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어 생명을 주시는 것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23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 7:16-18

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18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은 참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

빌립보서 3 장 10 절에서 ...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라는 표현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생활의 틀로 취하기를 갈망했음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할 틀인데, 이것은 반죽이 틀에 넣어져 그것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과 흡사하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인간 생활을 하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 곧 십자가 아래서의 생활을 계속했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시기 위해(요 6:57) 인간 생명을 계속적으로 죽음에 넣으신 것을 가리킨다. 우리의 생활은 인간 생명에 대해 죽고 신성한 생명을 삶으로써 이러한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체험하기 위한 조건이다.(신약의 결론, 9 권, 믿는 이들, 143 장, 111-112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땅에서의 생애 전체에 걸쳐 일어났다. 그분은 사시면서 또한 죽고 계셨다. 즉 새 창조물 안에 있는 삶을 사시기 위해 옛 창조물에 대하여 죽고 계셨다. 이것이 빌립보서 3 장 10 절에 나오는 ‘그분의 죽음’의 의미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우리 매일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죽음에 넘기고 그것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죽음에 넘긴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인 신성한 생명이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외적인 타고난 생명이 죽음에 넘겨질 때, 내적인 신성한 생명이 해방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체험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것이다.

빌립보서 3 장 10 절에는 네 가지 중요한 항목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아는 것,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아는 것,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아는 것과 관련된다. ‘같은 형상을 이루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게 되는지를 보여 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써 그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고난의 교통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기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기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위치로 인도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된다.

몸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타고난 생명을 끊임없이 죽음에 넘기셨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계셨고 하나님을 사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자 할 때, 우리 또한 오직 그분을 향하여 살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이것이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앎으로써, 즉 그분의 부활 능력 안에서 그분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얻는다.

주 예수님은 ...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심으로 ... 항상 그분의 인간 생명을 죽음에 넘기시어 그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하셨다(요 10:10-11, 17).(신약의 결론, 9 권, 믿는 이들, 143 장, 112-113 쪽; 신약의 결론, 22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349 장, 4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9 권, 믿는 이들, 143 장

10/14 토요일

### 아침의 누림

마 16:24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롬 6:3-4**

3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마 16:21-23, 25-27**

21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삼 일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시기 시작하시니,

22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며 책망하기 시작하였다.

23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25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

27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롬 6:5**

5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안에 두셨고, 우리가 이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날마다 우리를 형태 짓고 계신다(롬 6:3-4). 우리는 우리의 인간 생명에 대해 죽고 신성한 생명을 삶으로써, 이러한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안에서 타고난 생명은 죽음당하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자아는 무력하게 된다(고후 4:16, 롬 6:6, 마 16:24).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이 틀 안으로 밀어 넣도록 허락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습으로 형태 지어질 것이다(롬 8:28-29). (신약의 결론, 22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349 장, 4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양에는 타고난 사람이나 옛사람이나 자아에 속한 어떤 표시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때,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형태 짓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형태 지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옛사람과 자아가 처리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타고난 사람과 함께 타고난 생명과 옛사람과 자아가 계속적으로 죽음에 넘겨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는 타고난 생명이나 옛사람이나 자아에 속한 어떤 활동이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나 옛사람이나 자아 안에서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상을 지니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 형상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의 형태이자 틀이며, 우리가 이 틀 안에 놓여진 ‘반죽’이라는 사실에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태 곧 틀에는 타고난 사람과 옛사람과 자아가 없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에 의해 배제된다. 이와 같이 틀에 놓여져 형태 지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게 되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된다. (신약의 결론, 9 권, 믿는 이들, 143 장, 113-114 쪽)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써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아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빌 3:10 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아래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는 타고난 생명으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것에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해야 한다. 이것은 죽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하나의 틀이 있는데, 이 틀은 죽음 곧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상에는 죽음의 요소, 즉 그분 자신의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 있다.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그분은 매 순간 자신의 생명을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에 의해 사셨다. 비록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이 땅에서 그분의 여정의 종착역이었지만, 그분은 삼십삼 년 반의 인생 내내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생명에

의해 사심으로 십자가의 죽음 아래 사셨다. 이것 또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안에 있는 위대한 요소이다.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여쭙어 보아야 한다. “주님, 사랑하는 이가 저입니까, 아니면 당신께서 제 안에서 저로부터 저를 통하여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신에 의해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의한 사랑이며, 죽음과 부활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갈 2:20)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에 부합하는 이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3 장, 69-7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그리스도인의 생활, 16 장;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3 장

### 추가로 읽을 말씀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52장

### 찬송: 631 (英) 부활 능력 아는 사람 (中:464)

1 부활 능력 아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해  
생명 성장하게 함은 오직 죽음뿐일세

#### (후렴)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네  
오직 죽음 통해서만 생명 자라네.

2 주의 형상 이루도록 나를 죽음에 넘겨  
십자가에 머물면서 혼 생명을 부인해

3 영원하신 영을 통해 주와 함께 못 박혀  
죽음 내게 운행할 때 생명 나타내겠네

### 10/15 주일

#### 아침의 누림

#### 벧전 2:19-25

19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슬픔을 참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20 여러분이 죄를 짓다가 매를 맞고 견딘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견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21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셨습니다.

22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속임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3 그분은 욕을 들으셨지만 욕으로 되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24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어 상처 입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낮게 되었습니다.

25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 벧전 3:14-15

14 그러나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15 오직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이유를 듣고자 하는 각 사람에게 언젠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 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8:14-39;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48-49 장

#### 2 단계-주제별 연구

Being Fashioned Versus Being Transformed

Scripture: 로마서 12:2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Romans, msgs. 26*

Supplemental Reading: *None*

Hymn: 750

[churchinnyc.org/bible-study](http://churchinnyc.org/bible-study)